

“민주 입실군수 경선 공정성 훼손 우려”

한득수 예비후보, 금품수수 의혹 관련 “사실무근” 부인... “모든 자료 제출해 진실 규명할 것”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실군수 후보에 도전하는 한득수 예비후보가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경선 투표 당일 제기된 특정 사진과 관련 보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이 확대·재생산되면서 경선 결과 발표까지 지연되는 상황은 공정한 경선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 조속히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된 사진 속 인물과 관련해 “해당 인물은 본인을 비롯한 캠프 자원봉사자들과 어떠한 인적 교류나 연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입실군수 경선을 치르고 있는 한득수 예비후보가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필요하다면 이를 증명할 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서 제기하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제시된 바 없다”며 “경선 전 과정에서 당의 규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

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유포해 경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며 “학의적인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예비후보는 “공정한 검증 과정을 통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말까지 정당당원에게 경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입실군 삼계면에서는 한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정황이 CCTV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현재 경찰이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1일 경선 개표 결과 발표를 중지시킨 바 있다. /0만호 기자

“말 아닌 실천”... 광역의회 정원 확대 숨은 공로

문승우 도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공약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정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40명에서 44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원 확대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설득과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문 의장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 전북의 현실과 특수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원과 관련해 통화 결과 문 의장은 “수십차례 차례 국회를 방문했다”며 “의원들과 함께하기도 하고, 혼



자 또는 도의회 직원들과 동행해 설득 작업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정지권 일각에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이 직접 발로 뛰며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번 성과는 문 의장이 도의회 의장 취임 당시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말 아닌 행동과 결과로 보여준 시혜”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문 의장은 6.3 재선거 군산·김제·부안간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열심히 표밭을 갈고 있다. /0만호 기자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후보 확정인들의 다짐

“시민주권 바로 세우겠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로 조지훈 예비후보가 최종 선출됐다.

조 후보는 22일 입정문을 통해 전주 시민과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는 시민주권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전주를 만들자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재정 위기와 인구 절벽으로 멈춰 선 전주를 다시 뛰게 하려는 절박한 시민의 외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나 30년간 전주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겠다”며 “시민의 삶을 바꾸고 일상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우범기 후보와 구주영은 후보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민주당은 전주 발전을 위한 원팀”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주의 미래 비전으로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 △피자컬



SI 특별도시 △전북 13개 시·군을 잇는 플랫폼 도시 구축 등을 제시하며 “전주의 매력과 자산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직한 소통 행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전주시를 만들겠다”며 “시민이 부르짖어 더딘 찾아가고,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이제 시작”이라며 “이제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하는 진짜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민중과 민생을 회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주의 피란 물결이 전북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민주당 압승을 이끌겠다”며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변화와 혁신으로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0만호 기자

“지역의 미래, 더 큰 하나의 힘으로”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

오는 6.3 지방선거 남원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정된 양충모 예비후보는 22일 밝힌 입정문을 통해 남원시민과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함께 경선한 이정린·김영태·김원종 후보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더 큰 하나의 힘으로 남원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충모 예비후보는 이번 선택은 멈춰버린 남원을 바꾸어 대도약을 이루려는 시민들의 명령이라며, 기대와 믿



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타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에서 남원발전을 위해 실현이 가능한 정책도

본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충모 예비후보는 시민들에게 6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통합의 원팀으로 대도약 완성할 것”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

22일 결선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경선에서 권익현 예비후보가 최종 승리하며 본선행이 확정됐다.

권 후보는 22일 결선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군민과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을 넘어선 본선행된 권 후보는 “저를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가슴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며, “오늘의 승리는 개인



의 영광이 아니라 부안의 중단 없는 발전을 바라는 군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경선을 치른 후보들의 예우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핵심 비전으로 ‘부안형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권 후보는 부안의 최대 과제인 △5

만 인구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언급하며, “일자리가 풍부하고 서민의 삶에 활력이 되는 부안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희망의 부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부안 대도약 완성”을 꼭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지자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전북선관위 “30일까지 결원 통지 있어야 지선과 동시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결원통지를 받은 때

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결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6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이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구·시·군의회의원이 다른 구·시·군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일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0만호 기자

“도지사 경선 전면 재실시해야”

민주 사당화저지 전북도민대책회의, 당 지도부 규탄

민주당 사당화저지 전북도민대책회의(상임대표 나춘균)는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전북도지사 경선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 재경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춘균 상임대표와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민심을 외면한 채 일방통행식 경선을 강행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이번 경선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중앙당 지도부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고,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가장 앞

장서 지지해 온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지도부가 보여준 태도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안호영 의원이 제기한 이원택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 재

검찰 실시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결과 공개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현행 도지사 후보 선정을 취소하고 모든 절차를 원

점에서 다시 진행하는 전면 재경선 실시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당 지도부 퇴진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규탄 발언과 함께 구호



민주당 사당화저지 전북도민대책회의는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전북도지사 경선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 재경선을 촉구했다.

제창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민주당 사당화 폭망한다 정청래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의사를 표명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특정 최고위원의 사진이 부착된 상자를 발로 밟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0만호 기자

‘단식 12일째’ 민주 안호영 의원, 병원 이송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식 12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안 의원은 22일 오후 1시 46분경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전북도지사 경선 경쟁자였던 이원택 후보의 ‘제3차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검찰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안 의원 보좌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호영 의원께서 저혈당 쇼크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차지호 의원의 진

단 아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하며 “안 의원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빠른 쾌유를 기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병원 이송 당시 현장에는 조정식 대령장 정무북보와 홍익표 정무수석 등 여러 국회의원이 긴급히 방문했으며,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식사비 대납’ 논란으로, 정청래 당대표의 윤리 검찰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검찰 과정에 대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충분성을 문제 삼으며 안 의원은 경선 연장과 재검찰을 요구



(사진=안호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당내 경선의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단식이라는 강경 대응과 건강 악화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당 지도부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0만호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9회 고창군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총 21건의 의안심사가 이루어진다.

임시회 둘째날인 23일부터 28일까지는 ‘윤곡습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현장 등 총 10곳의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점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